전법 일기

곳곳서 누구와도 하나 되면 상대 헤아리는 사랑 피어나

다양한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추를 잘못 끼워서 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나 역시도 사랑을 잘 몰라서 헤매기도 하고 아픔도 겪고 했는데 나의 뿌리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가가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으로 올해 5월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사랑 명상 수업을 하게 되었다.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다. 여러 가지의 표정 그림 중 최근 감정을 체크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라는 표정을 고르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래서 "다음 달 수업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할까요"라고 했더니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수업 후의 학생들 피드백 몇 가지를 소개한다.

△작은 파도들의 일렁임 탓에 내가 바다인 것을 잊지 마렴. 사랑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줘.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나의 뿌리에 기대어 모두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너무 집착하게 되면 상대방이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내 안의 참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마음의 걱정, 슬픔 등을 근본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좋았다.

이런 피드백을 보면서 아이들이 집착과 욕망으로 포장된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재밌게 관찰되었던 점이 있다. 학생들이 러브스토리보다도 참나와 소통하는 경험담을 들려줄 때 훨씬 더 숨을 죽이고 집중해서 듣는 점이었다. 그것을 보면서 '누구나 자신의 근본을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학생들과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기쁨이 크다.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다. 나도 바깥으로 사랑을 구하다가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내면으로 몰입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미 사랑이 충만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육체적인 사랑에도 많이 끌려간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행하실 때 미녀가 유혹해도, 아홉 마리의 여우가 나와서 꼬드겨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바로 내 안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환상에 끌려가지 않은 것이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어떤 것도 둘로 보지 않는다면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내면서 어원을 찾아보게 되었다. 사랑은 사량(思量)에서 나온 말로 '생각하여 헤아린다'는 뜻이다. 즉,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서 하나가 되어 주는 마음이다. 그것을 실천하려면 모든 것을 근본으로 되돌리면 된다. 왜냐하면 근본은 모두와 하나가 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근본을 통해서 누구와도 하나가 돼 주는 사랑이 곳곳마다 피어나기를….



혜벽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송마나의 시절인연

그날 태평호엔 하늘이 내려 앉았다

11월은 가을빛을 밀어내고 겨울 곁으로 다가가려고 한다. 단풍마저 떨어진 헐벗음으로 일찍 적멸에 드려는 것인가. 추수를 끝낸 들판은 메마른 들꽃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바람에 날려 보낸다.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던 첫해에 중국 황산을 찾아 나섰다.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시골의 논두렁 밭두렁은 원초의 자연으로 기쁨이 넘쳐흘렀다. 굽은 길을 돌아서니 아스라이 바다가 보였다. 운전하는 기사님이 바다가 아니라 태평호(太平湖)라고 알려주셨다. 호수에 안개가 드리웠다. 드넓은 호수 건너편으로 야트막한 산들이 수평선처럼 아스라이 가물거렸다. 잔잔한 물 위에는 고기잡이 조각배 한 척이 떠있었다. 나는 자동차를 멈추게 하고 산수를 바라보았다. 그림으로만 보았던 동양의 수묵화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무채색 풍경은 먹물의 흑백 농담으로, 그나마 물로 희석되어 연하게 그려졌다. 멀리 있는 산들의 형태는 분명하지 않다. 산의 뾰쪽한 봉우리가 강물 속으로 깎아내린 것 같다. 소나무로 태어나려면 황산의 소나무로 태어나라고 했던가, 기기묘묘한 자태를 뽐냈던 소나무들도 물속으로 무너져 내렸을 게다. 원근법이 더는 의미가 없었다. 먼 것과 가까운 것이 하나 되어 펼쳐졌다. 안과 밖의 분별은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림 · 최주현

태평호에 하늘이 내려앉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분할 수 없는 광대무변한 호수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떠 있는 작은 배 한 척이 허허롭다. 고기잡이배는 위치를 고정화하거나 개인화하지 않고 물결 따라 흘러간다. 두 발로 디디고 선 땅의 물리적 위치와 넓이를 탐하는 인간의 욕심이 하찮게 느껴졌다.

배 안에 언뜻 사람 하나가 보이는 듯하다. 그 사람은 얼굴 내밀기를 저어하며 풍경의 주인 노릇을 하려 들지 않는 것 같다.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빈 낚싯대를 드리우고 산수 속에서 노닐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는 세계의 비밀을 다 알아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혼란한 세상에서 벗어나 산과 하늘이 삼투하는 강물 속으로 스며들어 한 폭의 자연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견자(見者)의 마음은 이 세계보다 클 테지만 화폭 속에서는 가물가물 왜소하다.

밋밋한 수묵화는 도무지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이라고는 없다. 다채로운 빛들은 산수의 내면으로 잠기고, 기하학적인 선이나 감각을 자극하는 그 무엇도 없다. 견고함을 걷어내고 무거움에서 벗어난 담담한 풍경이 오히려 마음을 그윽하고 충만하게 한다. 강렬한 맛은 우리를 매혹하고 흥분시키지만 곧 물을 찾게 한다. 밍밍한 맛은 처음에는 자극적이지 않지만 차츰 변화하여 진정한 맛을 드러낸다. 무미(無味) 한 맛과 같은 풍경은 일시적인 강렬함이나 허탄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이윽고 그 무위(無爲)의 풍경은 우리의 눈을 밝혀 자연의 안쪽으로 이끌어 간다.

풍경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차츰 열렸다. 산과 강 전체가 보였다. 태평호에 떠 있는 고깃배의 사공이 물이 되고 산이 된다. 산수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사라지고 풍경 자체가 된다. 조각배에 몸을 싣고 가뭇없이 흘러간다. 인간의 마음이 자연과 하나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 바로 법열(法悅)의 세계 아닌가. 〈작가〉

기자칼럼

부처님 가피 전하는 치안도량 '불심원'

지난 9월, 서울 강남구민의 파수꾼으로 안전을 돌보는 수서경찰서에 법당이 들어섰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불사로 5년 만에 문은 연 '불심원'이다. 부처님 자비와 깨달음이 모인 곳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 법당은 2평 남짓한 소박한 공간이다.

10월 25일, 단장을 마친 '불심원'에서 첫 법회가 열렸다. 경찰 포교의 씨앗이 싹트는 순간이다.

수서경찰서 내 법당은 5년 전, 경찰서가 본관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여유공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문을 닫았다. 이후 코로나19가 닥치며 법당을 다시 열 동력을 잃었다. 그러다 별관이 세워지고 여유 공간이 생기면서 5년 만에 '불심원'이라는 이름의 법당으로 문을 열게 됐다.

경승실이기도 한 불심원이 문을 연 배경에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탄허기념박물관장 혜거 스님으로부터 경승실장 소임을 넘겨받은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경승실을 단장하기 위해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사부대중과 불사금 모연에 나섰다. 소중한 삼보정재로 불단 장엄과 인테리어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거점 도량이 사라진 5년 간 회원 이탈이 이어지며 단체가 해체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법당이 개원하면서 수서경찰서 불자들은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행활동을 할수 있게 됐다.

불심원 회원들은 수서경찰서 직원들은 물론 인근 거주하는 경찰들에게도 공간을 열고 함께 월 2회 기도와 명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관은 24시간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많은 현장에서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그런 경험을 불교를 통해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들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불자경찰 마음케어뿐 아니라 포교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비구니스님 원력 아래 부처님 가피를 전하는 치안 도량 '불심원'이 경찰들이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길에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아들 희귀병에 홀로 벌이는
엄마의 외로운 싸움

스리랑카 이주민 김제이씨 아들 노강현군
관절에 종양 자라는 희귀병, 이미 수술만 16번
성인 될 때까지 최소 10년간 수차례 수술받아야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